

## 암달러시장에서의 환율변화로 바라본 북한 경제

-북한은 매년 외환위기 경험하고 있어



2002.07 ~ 2008.08 암달러시장에서의 북한환율변화 ©열린북한통신

2008년 한국은 98년 외환 위기와 유사한 규모의 환율 폭등을 경험했다. 2008년 1달러에 90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은 12월 중 1,5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60%이상 폭등한 것이다. 이번에 한국의 달러 가치가 폭등한 근본 이유는 한국 실물 경제의 위기가 그 원인은 아니다. 오히려 그 원인은 밖에서 발생했다.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여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한국에 들어와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북한에는 한국과 같은 외환 위기가 없을까? 북한은 한국과 달리 개방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위기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 정답은 북한에도 외환 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 규모도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큰 폭의 환율 상승이 있다.

북한은 2002년 이전에는 1달러:2원의 공식 환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실제 암달러 시장 환율은 1:200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2년 7월 1일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면서 환율을 1\$:150원으로 시장 가치에 근접하게 정상화시켰다.

북한의 환율은 크게 세 종류이다. 하나는 두 종류의 공식 환율이고 다른 하나는 암달러 시장의 비공식 환율이다. 공식 환율은 이 중 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는 외국인들에게 적용하는 환율로서 이는 2002년부터 유지해온 1:150원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외환 교환소에서 적용하는 환율로 이는 암달러 시장의 실제 환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의 실질 환율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압달러 시장의 환율을 파악하면 된다.

북한 압달러 시장의 실질 환율은 2002년 7월에 1:200이던 것이 2008년 7월에 3,200원, 최근 2009년 1월에는 3,500원으로 상승했다. 2002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6년 동안 북한의 환율은 16배 즉 1,600% 폭등한 것이다. 이는 2002년부터 매년 평균 2.67배 정도 환율이 상승한 것이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은 한국의 98년 IMF 외환위기에 경험했던 환율 폭등을 2002년부터 매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북한의 지속적인 환율 폭등을 야기하는 것인가?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정권이 무분별하게 자국 화폐를 찍어 내기 때문이다. 북한은 90년대 말, 2000년 초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산업 기반이 사실상 황폐화되었다. 때문에 극심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화폐를 찍어낸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돈 가치는 폭락하고 달러 가치는 폭등한다. 실제로 북한의 쌀 가격은 2002년 1kg에 45원 수준이던 것이 2008년 2,000원대로 45배가량 폭등했다. 그만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것이다.

둘째 이유는 북한의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로 외환 보유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98년 3억2400만\$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래 매년 무역 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7년에는 11억4000만\$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북한 전체 무역액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북한의 무역 수지 적자는 북한이 외국에 팔 상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외화벌이 원천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북한의 광물 자원과 농수산물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셋째 이유는 북한 당국이 환율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관련 있다. 북한이 이중 공식 환율 제도를 쓰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다. 외국인에게는 1:150의 환율을 적용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다른 환율을 적용한다. 국가외환교환소에서 적용하는 환율은 압달러 시장 상승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다. 북한 정부는 한편으로는 압달러 시장을 단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압달러 시장의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 환율가격을 압달러 시장에 근접한 수준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암시장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조만간 국가외환교환소의 공식 환율도 상승해 온 것이다. 이는 다시 압달러 시장의 환율을 상승을 재추동하고 있다.

넷째 이유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개방되어 소비 수준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도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품을 써보면서 질 좋은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달러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2009년의 북한 환율변동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특이한 상황(개혁, 개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환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 틀림없다. 특히 금년에는 2008년에 비해 상승폭이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무역, 시장 통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2009년부터 모든 수입품에 한하여 국가의 독점적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북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민간 차원에서의 외환 유통이 줄어들 것이며 결국 암 달러시장의 외화는 더욱 고갈되고 따라서 환율은 오를 것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판매한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개인 시장이 존재하는 한 외화에 대한 주민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때문에 외환환율은 금년에도 계속 오를 것이며 그럴수록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쪼들릴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환율은 2008년 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큰 폭으로 상승해 왔다. 그 근본적 이유는 외생적 이유 때문에 환율 상승을 겪고 있는 한국과 달리 북한 내부에 있다. 북한 경제 정책의 실패와 산업 기반의 붕괴가 그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북한의 근본적 정책 전환, 즉 개혁, 개방으로의 정책 전환 없이는 북한은 만성적인 외환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북한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다.